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총정리

매체의 경우 번호에 (매체)라는 표현을 달아줬으니 학습에 참고

이번에는 개념편, 문제편, 실전학습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잘 학습해주세요!

여러분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어요.. 즉 음운 취급을 못 받아요 제발요..... 0순위 암기사항임

개념편 정리(개념이라고 패스하시면 큰 일 남, 대부분 심화임)

1(매체). 전통적 매체인 신문은 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함

2. 반모음도 분절 음운(음운, 음소라고도 함)에 해당함

3. 반모음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 방해는 받지 않음

4. 비분절 음운은 음운, 음소에 얹혀 실현되고, 다른 말로는 운소라고도 함

5. 한국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이고 원칙상으로 단어의 첫 머리에만 장단 표현 가능

6. 이중 모음의 종류(제발 좀 외워주세요...)

1) j 계열(ㅟ, ㅞ, ㅟ, ㅞ, ㅠ, ㅠ, -)

2) w 계열(ㅜ, ㅜ, ㅠ, ㅠ)

7. ㅟ와 ㅠ는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

8.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ㄱㄷㅂ 중에 하나로 변함

9. 제발 이제는 구개음화 조건 정확히 외워주세요...

구개음화는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변하는 현상임

ㄷ뒤에 형식 형태도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ㅈ이 ㅈ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구개음화임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축약 + 구개음화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틀린 거면 댓 달아주세요 반박 환영

수특 예시) 닫히다 -> 다치다

10. 경음화(된소리되기)의 조건 중에 어려운 거 정리

1) 한자어에서 ㄹ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ㅌㅈ의 경음화  
발달, 질서, 물질

2)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할 것을 -> 할꺼슬

11.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며 음운으로 구성됨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 가능

12. ㄹ의 비음화(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됨

종로 -> 종노

흙런 -> 흙넌

13. 연음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일어남 음운 변동 아님!

14. 필수적인 건 아닌데 ㄹ탈락이 있긴 함 합성어나 파생어 만 들어질 때 일어나기도 함(ㄹ이 ㄴㄷㅅㅈ 앞에서) 수특예시) 하느님, 화살, 바느질

15. 첨가랑 탈락 중에 언제 일어나는지 조건 외우면 좋을 것 정리

1) ㄴ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일어남

2)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절대 아님!!!!

3) ㄹ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ㅅ 등의 앞에서 탈락 예시는 알 + 니 -> 아니, 알 + 시 + 고 -> 아시고

4) ㅎ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5) ㅡ탈락: 어간의 끝소리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6)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함

예시는 자 + 아서 -> 자서, 서 + 어 -> 서

16. 구개음화는 조음 방법이랑 조음 위치가 모두 변하는 현상임

17. 짓밟히다의 음운 변동 결과는 [짚빨피다]임 교체 2번, 축약 1번이 일어난 결과다.

## 18.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

원래 아무튼 서술격이어도 조사라서 명사 뒤에 붙는 게 맞는데 (사람이다와 같이) 특이하게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을 수도 있음

예시<sup>1)</sup>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다.(부사 뒤에 붙음)

예시<sup>2)</sup> 오늘 아침 잠을 깬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연결 어미 뒤에 붙음)

## 19. 미지칭과 부정칭 구분법

1) 한글로 하자면 미지칭(未知稱)은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 부정칭(不定稱)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외우면 편하다.

즉 해당 문장에 ‘아무’를 넣어서 말이 되거나 굳이 밝히지 않으면 부정칭이고 그 외에는 미지칭이다.

2) 영어로 하자면 해당 문장을 대충 영어로 번역했을 때 who why what how when이면 미지칭  
any, some이면 부정칭입니다.

## 20. 유의해야 할 지시 동사와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이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저러하다(저렇다): 지시 형용사

이리하다(이리하다), 그리하다(그러다), 저리하다(저러다): 지시 동사

21. 지금쯤이면 사실 다 외웠어야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법입니다. 그냥 수능특강 본문 복사붙여넣기합니다. 제발 외우세요!!!

1)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현재 시제 평서형: 잔다/먹는다(동사), \*예쁘다/\*좁는다(형용사)

2)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자는/먹는(동사), 예쁜/좁은(형용사)

3)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명령형/청유형: 자라/먹자(동사), \*예빠라/\*좁자(형용사)

4)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음.

-(으)려고/-고자: 먹으려고/먹고자(동사), \*좁으려고/\*좁고자(형용사)

22. 부사는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 (바로 너)

23. 관형사는 격 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음, 부사도 격 조사랑은 결합하지 않지만 관형사와 달리 보조사는 결합 가능함(차가 빨리도/는 간다)

24. 보조사는 생략이 어려움(보조사 자체가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지라 빠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25. 명사 + 명사, 부사 + 부사는 통사적 합성어, 부사 + 명사는 비통사적 합성어임

26. 보슬비는 비통사적 합성어임: 비자립적 어근 + 명사의 구성, 즉 보슬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임

27. 손은 의미 확대의 예시임(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에서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됨)

28. 사랑하다는 과거에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사랑하다는 의미만 남은 의미 축소의 예시임

~~29. 외래어 표기법(그냥 일단 넣어봄,,, 물어보면 <보기> 줄 거 같아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듯)~~

- ①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함.
-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썬(×)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us: 버스(.), 뻬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 camera: 카메라(.), कै머러(×)

~~30. 로마자 표기법(그냥 일단 넣어봄,,, 물어보면 <보기> 줄 거 같아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듯, 다만 밑가 중요한거는 밑줄 쳐둬 그거는 외우셈)~~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음.

자음 동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백마[백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해돋이[해도지]: haedoji, 놓다[노타]: nota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죽변[죽뻬]: Jukbyeon, 팔당[팔땡]: Paldang

31. 구와 절 이제는 외우자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

절은 주어와 서술어 갖춘 거

구보다 절이 보통 더 큰 단위

32. 보어도 주성분임, 부속 성분에 관형어랑 부사어 있음

부사어 제발 필수적 부사어 떠올리면서 주성분! 이리지 마셈

33. 본 용언 + 보조 용언은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함

34.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좋아한다.

☞ 주어는 '모든 사람이'이고 관형어 '모든'은 주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목적어는 '우리 형을'이고, 관형어 '우리'는 목적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35. 보어 찾을 때 기계적으로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침. 보격 조사 이/가도 생략이 가능함, 즉 되다/아니다 있으면 이/가 없어도 넣어서 말이 되면 보어 처리 해야함

언니가 대학생 되었어 /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36.체언은 관형어가 될 수 있음(시골 풍경에서 시골은 관형어)

37. 부사는 관형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음, 꼭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님!!!

38.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는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임

39. 이 집은 마당이 넓다.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집은’이고 서술어는 ‘마당이 넓다’임. 서술절 ‘마당이 넓다’에서 주어는 ‘마당이’이고 서술어는 ‘넓다’임.

40.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41. 상대 높임 제발 외우세요.... 수완 정리에 있습니다...

42.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함.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  
예시)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43. ‘-겠-’은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음

예)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44.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ㄴ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45.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차이는 ‘주체의 참여 여부’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간접 사동)

46. 피동 표현은 접미사 ‘- 되다’, ‘- 받다’, ‘- 당하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또한 사동 표현은 접미사 ‘-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47.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 표현이 쓰임.

48. 간접 인용은 해당 인용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서술하는 게 핵심임, 즉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49. 기운을 회복한 말이 내달기 시작하였다.에서 ‘내달기’는 목적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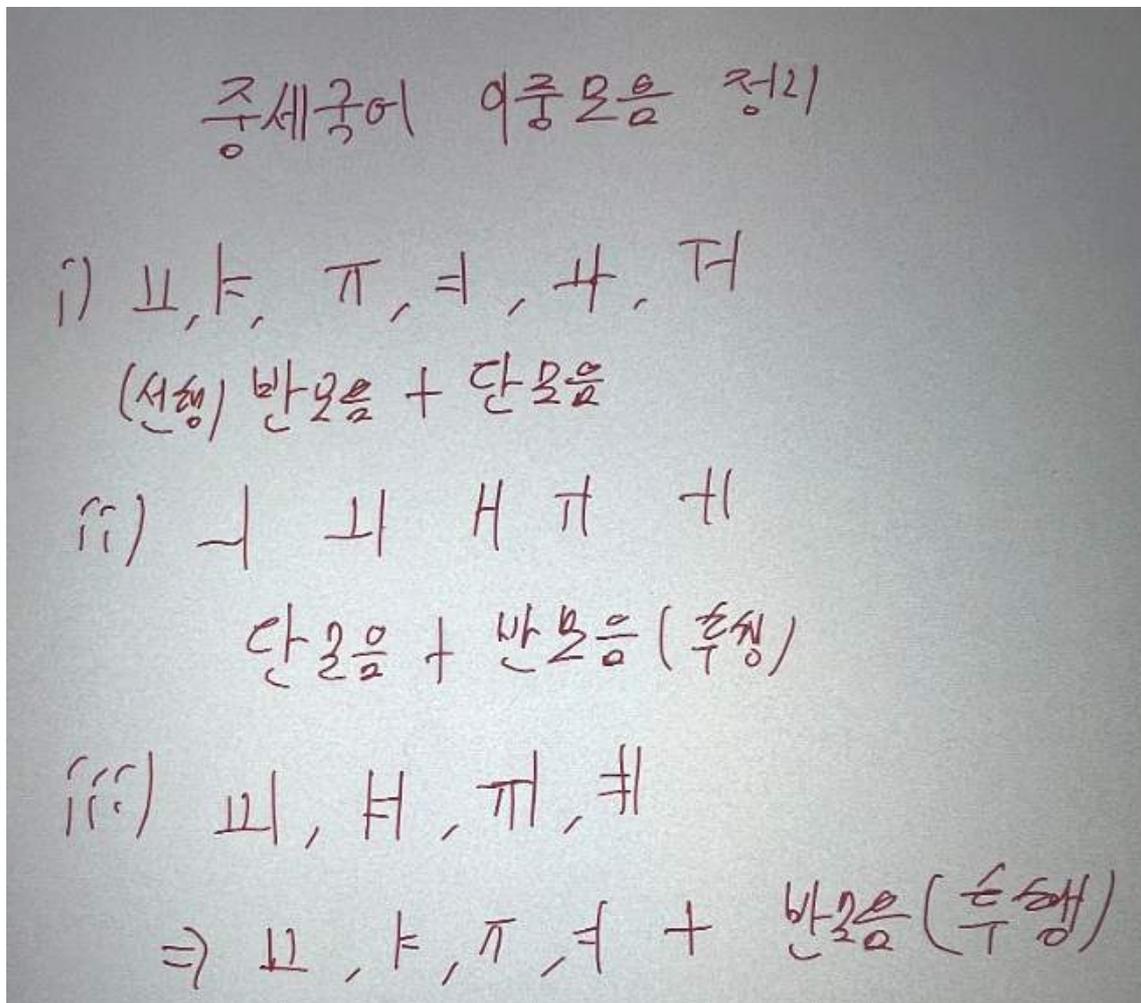
교훈: 특정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격조사를 넣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50.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 관련을 의미하고 응집성은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함

51. 중세 국어 단모음은 7개임(ㅏ, ㅑ, ㅣ, ㅓ, ㅕ, ㅗ, ㅛ)

52.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Ø(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Ø'로 나타남.

교훈: 중세 국어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에서 반모음이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알아야함 사진 참고



53.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르, 르/를' 대신 '리'가 사용되기도 함. (머릴 (머리 + 리))

54. 중세 국어에서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이인칭 주어 의문문에 ‘-니다’, ‘-르다’ 등을 사용하였음.

55.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에서 높임의 유정 체언이랑 무정 체언에는 ‘스’이 쓰였음

56.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달라진 점들 정리(정말 굳이... 외워야하나 싶음..)

1)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스’이 ‘ㄷ’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스’을 사용함.

2) 거듭적기(흔철) 나타남

3) 반치음, 어두자음군 삭제

4) 거센소리되거나 된소리되기 나타나기 시작

5) 구개음화 나타나기 시작

6) 아래아가 삭제됨

7) 단모음이 8개 + 더 뒤로 가면 10개(지금의 단모음 체계)

8) 주격조사 가 등장

9)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등장 앓 엇

57(매체). 통속성의 정의: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성질

## 문제편 정리

1. 최소대립쌍은 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끼리, 비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끼리 대응해야 하며 자음, 모음, 반모음도 해당 종류끼리 대응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장단만 다른 ‘눈[目]’과 ‘눈[雪]’은 장단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함

## 2. 문제 푸세요

<보기>는 자음 분류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학습 내용] 국어에는 모두 19개의 자음이 존재하는데, 이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의 다섯 가지로 나뉘고,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때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파열음, 파찰음들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다시 평음, 경음, 격음의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은 국어 자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묶어서 장애음으로,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하고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비음과 유음을 묶어서 공명음이라고 부른다.

[학습 활동] 위에서 배운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자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묶어 보자. (단, 모든 자음을 묶지는 않아도 됨.)

ㄱ, ㄲ, ㄴ, ㄷ, ㄸ, ㄹ, ㄴ, ㄷ,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ㅌ, ㅎ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 보람: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ㆁ, ㅌ, ㅎ}, {ㄴ, ㄹ, ㅁ, ㅇ}
- 성준: {ㄱ, ㄲ, ㅇ, ㅋ}, {ㄴ, ㄷ, ㄸ, ㄹ, ㅅ, ㅆ, ㅌ}, {ㅁ, ㅂ, ㅃ, ㅆ}, {ㅈ, ㅉ, ㅊ}, {ㅎ}
- 수지: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ㆁ, ㅌ, ㅊ}
- 연경: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ㆁ, ㅌ, ㅆ}, {ㅈ, ㅉ, ㅊ}, {ㅅ, ㅆ, ㅎ}
- 혁준: {ㄴ, ㅁ, ㅇ}, {ㄹ}

- ① ‘보람’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② ‘성준’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묶었군.
- ③ ‘수지’는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만을 대상으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 ④ ‘연경’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⑤ ‘혁준’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ㄱ, ㄲ, ㅇ, ㅋ}, {ㄴ, ㄷ, ㅌ, ㄹ, ㅅ, ㅆ, ㅈ}, {ㅊ, ㅍ, ㅃ, ㅍ}, {ㅈ, ㅉ, ㅊ}, {ㅎ}은 차례대로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후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분류에 해당한다. 가령 연구개음 {ㄱ, ㄲ, ㅇ, ㅋ} 내에 파열음과 비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준'은 국어의 19개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묶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ㆁ, ㆁ, ㆁ, ㆁ}, {ㄴ, ㄹ, ㅁ, ㅅ}은 각각 장애음과 공명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ㆁ, ㆁ, ㆁ, ㆁ}과 {ㄴ, ㄹ, ㅁ, ㅅ}은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여 있지 않으므로, '보람'이 국어의 19개 자음을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③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ㅆ}, {ㅋ, ㆁ, ㆁ, ㆁ}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ㅆ}, {ㅋ, ㆁ, ㆁ, ㆁ}은 모두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에 해당하므로, '수지'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을 대상으로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④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ㆁ, ㆁ}, {ㅈ, ㅉ, ㅊ}, {ㅅ, ㅆ, ㅎ}은 차례대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으로, 가령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ㆁ, ㆁ} 내에 조음 위치가 다른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경'이 같은 조음 위치를 지니는 것끼리 묶었다고 볼 수 없다.

⑤ {ㄴ, ㅁ, ㅅ}, {ㄹ}은 각각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다. {ㄴ, ㅁ, ㅅ}, {ㄹ}은 파열음, 파찰음들 중 평음, 경음, 격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묶은 것이 아니고 조음 방법을 적용하여 묶은 것이므로, '혁준'이 조음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교훈: 충격적인 문제임

지금 이 문제는 자음 체계 표를 외울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파열음에 ㄱㄷㅂ가 있는지를 물었지

제발 혹시 모르니 외웁시다... 찾아서 외우세요 여따 수록하는 것보다는 심각성 느끼고 본인이 찾아서 적어보는게 좋음

### 3.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모음표 있는 거 삭제했습니다. 찾아서 외우세요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경구개 부근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며 연구개 부근과 매우 가깝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들 간의 차이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 예를 들어 ‘ㅏ’와 ‘ㅑ’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ㅏ’와 ‘ㅓ’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이다.

- ① ‘ㅡ’를 발음할 때보다 ‘ㅏ’를 발음할 때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 ② ‘ㅓ’에서 ‘ㅑ’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 ③ ‘ㅑ’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ㅓ’이다.
- ④ ‘ㅓ’를 발음할 때와 ‘ㅑ’를 발음할 때 모두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 낮고 저모음보다 높다.
- ⑤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두 모음의 관계를 판단하면, ‘ㅓ’와 ‘ㅑ’보다는 ‘ㅓ’와 ‘ㅑ’가 더 가깝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ㅑ’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ㅓ’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고모음인 ‘ㅡ’를 발음할 때보다 저모음인 ‘ㅏ’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 ② 전설 모음인 ‘ㅓ’에서 후설 모음인 ‘ㅑ’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인 경구개 부근에서 뒤쪽인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 ④ 중모음인 ‘ㅓ’와 ‘ㅑ’를 발음할 때는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는 낮고 저모음보다는 높다.
- ⑤ 후설 원순 고모음인 ‘ㅓ’는 전설 평순 저모음인 ‘ㅑ’와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고 후설 원순 중모음인 ‘ㅑ’와는 혀의 높낮이에서 만 차이를 보이므로, ‘ㅓ’와 ‘ㅑ’보다는 ‘ㅓ’와 ‘ㅑ’가 더 가까운 관계이다.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1) 가. 쓰- + -어 → [써]  
 나. 가- + -아서 → [가서]  
 (2) 가. 이기- + -어라 → [이겨라]  
 나. 배우- + -어도 → [배워도]  
 (3) 가. 뛰- + -어 → [뛰어/뛰여]  
 나. 동생+ 이- + -오 → [동생이오/동생이요]

(1가)는 용언 어간 끝의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 탈락의 예이다. (1나)는 어간 끝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모음 탈락은 매우 규칙적인 현상으로, ‘써[씨]’와 ‘가서[가씨]’에서 보는 것처럼 표기에도 적용되어 줄어든 대로 적는다.

(2)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 주는 예이다. (2가)는 어간 ‘이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이겨라]로 발음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2나)는 어간 ‘배우-’와 어미 ‘-어도’가 결합해 [배워도]로 발음될 때,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음절 수는 줄게 된다.

(3)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이다. 이것은 ‘ㄱ’과 ‘ㅣ’ 뒤에 오는 어미 ‘-어,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여 [여, 요]로 발음되는 것인데, [어, 오]와 함께 [여, 요]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첨가되는 반모음이 달라지는데, 어간 모음이 ‘ㅣ’, ㄱ, ㅛ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고 어간 모음이 ‘ㅓ, ㅜ’인 경우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된다. 반모음 ‘w’가 첨가되는 예로는 ‘보- + -아라 → [보와라]’ 등이 있는데, 이런 ‘w’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음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하여, 국어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은 발음상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이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1.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 + -□서 → [커서], 나서- + -□도 → [나서도], 견디- + -□야 → [견뎌야]

- ① —
- ② ㅓ
- ③ ㅜ
- ④ j
- ⑤ w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이 젓갈은 6월에 잡은 새우로 ㉠담가서[담가서] 육젓이라고 한다.
- 그녀는 자랑삼아 보석 반지를 나에게 ㉡보여[보여] 주었다.
- 선원들은 거친 파도와 굶주림과 ㉢싸워야[싸워야] 했다.
- 여의도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피여] 있다.
-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아니요].

- ① ㉠: 용언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둘 다 ‘ㅌ’라서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 ② ㉡: 용언 어간 끝의 ‘ㄴ’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것으로, 음절 수에는 변화가 없다.
- ③ ㉢: 용언 어간 끝의 ‘ㄴ’가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뀐 것으로,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 ④ ㉣: 용언 어간 끝의 ‘ㅣ’가 어미 ‘-어’ 앞에서 반모음 ‘j’로 바뀐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⑤ ㉤: 용언 어간 끝의 ‘ㅣ’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은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크- + -녕서 → [커서]’는 용언 어간 ‘크-’ 끝의 ‘ㄹ’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ㄹ’ 탈락의 예이다. ‘나서- +-녕도 → [나서도]’는 용언 어간 ‘나서-’ 끝 모음 ‘ㅣ’와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견디- +-녕야 → [견더야]’는 용언 어간 ‘견디-’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견디-’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ㅣ’이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용언 어간 ‘싸우-’ 끝의 ‘ㄴ’가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고, [싸우어야]의 4음절이 [싸워야]의 3음절이 된 것에서 음절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용언 어간 ‘담그-’ 끝의 ‘ㄹ’이 어미 ‘-야’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용언 어간의 끝 모음은 ‘ㅌ’가 아니라 ‘ㄹ’이므로, 동일 모음 탈락으로 볼 수 없다.

② ㉡은 용언 어간 ‘보이-’와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된 것이고,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④ ㉣은 용언 어간 ‘피-’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여]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⑤ ㉤은 용언 어간 ‘아니-’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요]로 발음된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5. 구개음화 표기에 반영 안함

6.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에서  
‘다가’. ‘면’은 연결 어미임

7. 장대높이뛰기의 직접 구성 요소는 ‘장대’, ‘높이뛰기’이다.

8. 부사 + 부사는 통사적 합성어임  
예) 곧잘(곧+잘)

9. ‘-어서’ 나오고 ‘하-’ 나오는 순간 음운론적 이형태 아니고  
형태론적 이형태라는거 캐치해야함 여서/아서는 형태론적 이형  
태

10. 푸다가 퍼로 활용한 것은 어미 불규칙이 아니라 어간 불규  
칙 활용이다. (우 불규칙)

11. 공부하다가 활용할 때 공부하여가 되는 것은 여 불규칙 활  
용, 즉 어미 불규칙 활용이다.

12.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소속된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부류에 동시에 소속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그는 합리적이다.’에서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는 합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에서와 같이 명사인 ‘사고’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또 ‘굳다’의 경우 ‘밀가루 반죽이 굳는다.’에서처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굳은 결심’에서처럼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 ① [ 그는 공을 차고 있다.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
- ② [ 사과 다섯 개를 샀다.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③ [ 주는 만큼 받는다.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④ [ 이건 정말이야.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는 공을 차고 있다.’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의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두 단어의 형태가 같고 품사가 달라 품사의 통용 사례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 두 단어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품사의 통용 사례가 아니라 동음이의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사과 다섯 개를 샀다.’의 ‘다섯’은 수 관형사이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의 ‘다섯’은 수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주는 만큼 받는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이건 정말이야.’의 ‘정말’은 명사이고,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의 ‘정말’은 부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의 ‘크다’는 형용사이고,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의 ‘크다’는 동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13.

다음은 부사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들과 달리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이유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이 단순히 격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적인 것에 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또 부사격 조사는 같은 형태라도 쓰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 ‘에’는 문맥에 따라 ㉠처소, ㉡시간, ㉢이유나 원인, ㉣수단, ㉤기준이 되는 대상 또는 단위를 나타낸다.

- ① ㉠: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
- ② ㉡: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 ③ ㉢: 나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
- ④ ㉣: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 ⑤ ㉤: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의 ‘에’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에’의 사례로는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의 ‘에’는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나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의 ‘에’는 앞말이 이유나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의 ‘에’는 앞말이 기준이 되는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14. ‘이 두 사람이 우리 반 대표로 뽑혔다.’라는 문장에서 ‘이’라는 지시 관형사는 다른 관형사인 ‘두’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명사구’인 ‘두 사람’을 수식하는 것임(개인적으로 좀 충격 먹은 선지네요 심지어 이걸 정답의 근거로 출제했습니다.)  
+ 관형사(어)는 체언을 수식하지 관형사(어)를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15. ‘이 모든 현’처럼 여러 개의 관형사를 나열할 때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맨 뒤에 놓임

16. 사실 그 아이는 맨 먼저 어머니의 옆을 지켰다.  
여기서 ‘맨’은 ‘더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관형사임

17. 난이도랑 별개로 문항에 사용된 개념이 너무 좋아요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어제 보니 우리 동네에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
- ㉡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 이 강은 예전엔 맑았었는데 현재는 오염되었다.

-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의 ‘갈라진’에서 ‘-니’은 논바닥이 갈라진 것이 과거에 완료되어 갈라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의 ‘맑았었는데’에서 ‘-았었-’은 강이 맑은 것이 현재에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 ‘생겼더라’,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일이 일어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하지만 ㉠의 ‘생겼더라’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 ② ㉡의 ‘갈라진’에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③ ㉢의 ‘맑았었는데’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18. 이거도 난이도랑 별개로 주동에서 사동으로 변화할 때 변화하는 게 뭔지 알아가시면 좋아요(숙제: 그럼 주동에서 피동은? 꼭 복습하시길)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동문은 주로 사동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사동사는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동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되어 쓰이면 사동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동반되는데, ㉠,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동문		사동문	
아들이 약을 먹었다.	→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	㉠
오빠가 집에 남았다.	→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겼다.	㉡

- ①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이-’,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 ② ㉠, ㉡의 사동문에는 각각의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 포함되었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④ ㉠, ㉡에서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각각 한 자리씩 늘었다.
-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에서도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게 하였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먹였다’(먹- + -이- + -었- + -다)에는 사동 접미사 ‘-이-’가, ㉡의 ‘남겼다’(남- + -기- + -었- + -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 ②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어머니’가 포함되었고, ㉡의 사동문에는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인 ‘우리’가 포함되었다.
- ④ ㉠, ㉡ 모두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두 자리이다. 한편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이다.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씩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아들’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인 ‘오빠’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 그는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더라는 문장에서

본용언 1개 보조 용언 3개임

먹고는 본용언 싶다, 하다, 앓다는 보조 용언

먹고 있지 않았더라는 문장에서

먹고는 본용언 있다, 앓다는 보조 용언임

20.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피동문에는 주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가 쓰인다. 하지만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능동사도 있고,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는 능동사도 있다.

	㉠	㉡
①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u>주었다</u> .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u>얻었다</u> .
②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u>주었다</u> .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u>배웠다</u> .
③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u>들었다</u> .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u>주었다</u> .
④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u>배웠다</u> .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u>얻었다</u> .
⑤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u>배웠다</u> .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u>들었다</u>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배우다’는 ‘\*배우이다/\*배우히다/\*배우리다/\*배우기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들다’는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피동사 ‘들리다’로 쓰일 수 있다. 다만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에서는 ‘들렸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면 어법에 맞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에 제시된 예가 적절하지 않다.

③ ㉠, ㉡에 제시된 예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

선지 분석 꼼꼼히 해야하는 문항 ㉠이랑 ㉡ 둘 다 너무 중요함

21. ‘그가 냉소적인 것’에서 ‘그가 냉소적인’은 관형사절임  
냉소적+이+ -ㄴ-이 붙은 것임 즉 -ㄴ-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  
미 붙은거임

22.

언니는 어제 수업이 없으신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여쭙어보았다  
책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고서를 학교에 기증하셨어요

위의 문장에서 수업이 없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선생님’과 관련된 ‘수업’을 높였고, ‘책이 많으신’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책’을 높였다. 즉 두 문장에는 공통적으로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다.

23. 녹여졌다는 이중 피동이 아님

겉으로 ‘이’랑 ‘어지다’ 보인다고 어! 이중이다 이러지 마셈 제  
발.... 녹이다는 사동사라 어지다 붙여도 사동 + 피동이지 이중  
피동이 절대 아님

교훈: 겉으로 접사랑 ‘-어지다’ 보고 이중 피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셈 원동사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부터 판단한 후에 진행하셈  
제발

24. 외삼촌이 이삿짐을 옮겼다. 라는 문장은 대응되는 주동문  
을 만들기 어려운 사동문임. 제발 왜 안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셈 이해하고 넘어가야함 + 대응되는 주동문 없는 피동문도  
찾아서 복습하셈

25. 이거보다 나오면 어렵게 나올텐데 이런 감이라는 것만 익혀두셈 중요한건 암튼 간접 인용하면 원문장이 내 기준으로 바뀌는 거임

[A]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선생님: 다음을 탐구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직접 인용]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내일 나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다.

↓

[간접 인용]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_\_\_\_\_ 같다고 했다.

학생: 간접 인용이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밑줄 친 부분에서는 [A] \_\_\_\_\_ 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 보 기 >

시간 표현, 인칭 표현, 부정 표현

- ① 시간 표현
- ② 인칭 표현
- ③ 시간 표현, 인칭 표현
- ④ 시간 표현, 부정 표현
- ⑤ 인칭 표현, 부정 표현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시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오늘 자기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고 했다.’가 된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직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에서 ‘오늘’로 바뀌었고, 직접 인용에서의 인칭 표현 ‘나’가 간접 인용에서 ‘자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6. 지문형 문법인데 내용이 새로움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담화의 응집성은 여러 가지 형식적 장치를 통해 각 문장이나 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말한다.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의미적 등가(等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제 문구점에서 볼펜을 샀는데, 그거 불량품이었나 봐.”에서 ‘볼펜’과 ‘그거’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앞에 나온 말을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함으로써 응집성을 높이는 현상을 ‘재수용’이라고 한다.

“옛날에 어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는 재수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 앞 문장에 나온 ‘공주님’을 뒤 문장에서 ‘그녀’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재수용하는 말인 ‘그녀’를 ‘수용어’라고, 재수용되는 말인 ‘공주님’을 ‘피수용어’라고 부른다. 피수용어에는 ‘어느’, ‘어떤’, ‘한’ 등이 붙는 경우가 많고, 수용어에는 지시 관형사 ‘이’, ‘그’ 등이 붙거나 대명사 ‘이것, 그것, 그, 그녀’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앞의 예에서 수용어로는 ‘그녀’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를 사용한 ‘그 공주님’이나 ‘이 공주님’도 가능하고 또는 지시 관형사 없이 ‘공주님’도 가능하다. 단, ‘저 공주님’은 가능하지 않다.

[A]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도 유의 관계, 상하 관계, 한 단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단어의 지시 대상의 일부분인 관계인 부분-전체 관계 등 의미 관계에 기대어 재수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에서는 상위어가 하위어의 뒤에 오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길모퉁이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첫 문장의 ‘트럭’이 다음 문장에서 그 상위어인 ‘차’로 재수용된 예인데, 반대로 “길모퉁이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매우 어색하다.

담화에서 피수용어는 표면에 보이지만 수용어가 표면에 보이지 않으면, 수용어가 생략된 것이다. 생략은 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응집성 형성의 수단이다. “우리 누나는 내년에 미국에 갈 것이다. (그녀는) 거기서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다.”와 같이 주어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1.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소년’은 피수용어에,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한다.
- ②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수용어로는 ‘그 소년’도 사용이 가능하다.
- ③ “어제 휴대 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이거 고장이 났나 봐.”에서 ‘이거’는 ‘휴대 전화’를 대체하고 있다.
- ④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서 ‘거기’를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는 생략된 수용어가 있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땡볕에 오래 서 있었더니 피부가 다 타 버렸다. 별경게 부은 살갓이 따끔거렸다.
- ㉡ 나는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벗을 사귀고 나면 끈끈한 우정을 나눈다.
- ㉢ 잘 준비를 마친 아이의 얼굴이 발그스름한 것이 이상해서 손을 대 보니 불이 뜨거웠다.
- ㉣ 비 맞은 강아지가 내 앞에 앉았다. 동물도 이런 눈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 ㉤ 그는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뜯는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니 또 시작된 모양이다.

- ① ㉠: ‘피부’와 ‘살갓’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② ㉡: ‘친구’와 ‘벗’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③ ㉢: ‘불’이 ‘얼굴’의 일부분이므로, 부분-전체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④ ㉣: ‘동물’이 ‘강아지’의 상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⑤ ㉤: ‘손톱’이 ‘손’의 하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1.

- ① ‘소년’은 뒤 문장에서 ‘그’로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대명사 ‘그’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 ‘그’가 붙은 ‘그 소년’도 수용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이거’는 ‘휴대 전화’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휴대 전화’가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된 것이다.
- ④ 앞 문장에 나온 ‘강릉’을 뒤 문장에서 ‘거기’로 대체한 것으로, 이때 수용어인 ‘거기’는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를 재수용하는 말이 생략된 문장이다.

2.

- ⑤ ‘손톱’은 ‘손’의 하위어가 아니다. ㉤은 ‘손톱’과 ‘손’이라는 부분 - 전체 관계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피부’와 ‘살갓’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친구’와 ‘벗’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불’과 ‘얼굴’이 부분 - 전체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강아지’가 ‘동물’로 재수용된 것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어인 ‘동물’이 하위어인 ‘강아지’의 뒤에 오고 있다.

27.

수학 연구 동아리 임원인 '현수', '영훈', '용찬'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수: ㉠우리 동아리도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하는데, 모레 하는 게 어떨까?

영훈: 이번 주 금요일? 난 좀 곤란해. ㉡우리 반 친구들이랑 박물관 견학 가기로 했거든.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적절한 말임. '현수'의 첫 번째 말에서 '우리 동아리'는 이들이 속한 수학 연구 동아리를 가리키고, '영훈'의 두 번째 말에서 '우리 반'은 '영훈'의 반을 가리킨다.

## 28.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시 암기

㉠ 내 지비 이썸 저긔(내가 집에 있을 적에)

㉡ 부텃 나히 설흔돌히러시니(부처의 나이가 서른둘이시더니)

㉠을 보니, '내 지비 이시-' 에 관형사형 어미 '-고' 이 결합하여 '적' 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O)

㉡을 보니, 명사 '부텃' 이 '냥' 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X)

부텃은 명사가 아님 부터가 명사지

즉 지금 EBS는 시 관형격조사인거를 암기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문제 냈

29.

식미 기픈 브른 그믄래 아니 그출썸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뭇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갑니다.

㉠: 주격 조사 '히' 가 쓰였으므로 '내' 의 옛말은 '녕' 이었음을 알 수 있다. (X)

'내히' 의 '녕' 은 'ㅎ' 종성 체언이다. '내히' 는 '녕+이' 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주격 조사 '히' 가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보기>의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어적기 잘 파악하자)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사동사는 동사 어근에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 형성되었습니다. 또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 지기도 하였죠. 다음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사동사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자료]

	주동문의 사례	사동문의 사례
㉑	식미 기픈 므른 마마래 아니 <u>그출씨</u> (생이 깊은 물은 가뭇에 끓어지지 않으므로)	한비를 아니 <u>그치샤</u> (큰비를 그치지 않으시어)
㉒	그 술위 절로 <u>그우러</u> (그 수레가 절로 굴러)	轉輪은 술위를 <u>그우릴씨니</u> (전륜은 수레를 굴리는 것이니)
㉓	하늘토 <u>뒸며</u> (하늘도 움직이며)	하늘히 <u>므스믈 뒸우시니</u>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
㉔	츨믈 <u>썸리여사 썸시니라</u> (찬물 뿌리어야 깨시니라)	브라미 수를 <u>썸오느니</u> (바람이 술을 깨우니)
㉕	물 <u>깊고</u> (물 깊고)	바라래 빅 업거늘 <u>녀토시고 썸 기피시니</u> (바다에 배가 없거늘 알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

학생:  ㉑

- ① ㉑에서는 동사 어근 ‘긱-’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② ㉒에서는 동사 어근 ‘그울-’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③ ㉓에서는 동사 어근 ‘뒸-’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④ ㉔에서는 동사 어근 ‘썸-’에 사동 접미사 ‘-오-’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⑤ ㉕에서는 형용사 어근 ‘깊-’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㉑에서는 ‘그출씨’를 통해 ‘긱다’라는 기본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치샤’는 ‘긱이샤’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사동 접미사는 ‘-히-’가 아니라 ‘-이-’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㉒에서는 ‘그우러’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그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우릴씨니’를 통해 사동사가 ‘그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올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③ ㉓에서는 ‘뒸며’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뒸우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뒸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우-’임을 알 수 있다.

④ ㉔에서는 ‘썸시니라’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썸오느니’를 통해 사동사가 ‘썸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오-’임을 알 수 있다.

⑤ ㉕에서는 ‘깊고’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피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기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깊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반모음화는 ‘ㅣ’나 ‘ㄴ/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난다. ‘ㅣ’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ㅑ’로 바뀌고, ‘ㄴ/ㄷ’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ㅓ’로 바뀐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ㅑ’ 반모음화, ‘ㅓ’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피- + -어’가 ‘피[피:]’가 되는 것은 ‘ㅑ’ 반모음화의 예이고, ‘두- + -어’가 ‘뒤[뒤:]’가 되는 것은 ‘ㅓ’ 반모음화의 예이다. 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용언 어간이 1음절일 경우 장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보상적 장음화라고 부른다.

15세기에 ‘ㅑ’ 반모음화와 ‘ㅓ’ 반모음화가 존재하였으나,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ㅑ’ 반모음화의 경우 용언 어간 말의 ‘ㅣ’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15세기 국어에는 반모음 ‘ㅑ’로 끝나는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기 때문에 단모음 ‘ㅣ’가 다른 모음 뒤에서 반모음화를 겪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격 조사 ‘이’와 서술격 조사 ‘이라’가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할 때, 용언 어간 뒤에 ‘이’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할 때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 용언 어간 말의 ‘ㅣ’의 경우에는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론이고 ‘ㄴ/ㄷ’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반모음 ‘ㅑ’로 바뀌었다.

15세기의 ‘ㅓ’ 반모음화의 경우에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었다. 그런데 ‘ㅓ’ 반모음화의 경우 15세기에는 세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1음절 어간의 경우 ‘오-’와 ‘소-’를 제외하면 반모음화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 2음절 이상의 어간도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없거나 후음 ‘ㅎ’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났다.

1. 위글에서 설명한 15세기의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티- + -음 → 튼
  - ② 바 + 이라 → 배라
  - ③ 꾸미- + -어 → 꾸며
  - ④ 흐리- + -어 → 흐리어
  - ⑤ 눈호- + -아 → 눈화
2. 위글을 읽고 <보기>에 드러난 현대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이기- + -어라 → 이겨라[이겨라]  
 ㉡ 지- + -어도 → 저도[저도]  
 ㉢ 살피- + -어 → 살피[살피]  
 ㉣ 나누- + -어 → 나뉘[나뉘]  
 ㉤ 쓰- + -어 → 써[써]

- ① ㉠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ㅑ’로 바뀌는 것은 ‘ㅣ’와 ‘ㅑ’가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 이구나.
- ② ㉡의 ‘저도’의 경우 [저도]라고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ㅑ’가 첨가되었기 때문이구나.
- ③ ㉢의 ‘살피[살피]’의 경우 ‘ㅑ’ 반모음화가 일어났으나 ‘피- + -어 → 피[피:]’와 달리 보상 적 장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구나.
- ④ ㉣의 ‘나뉘[나뉘]’의 경우 ‘뒤[뒤:]’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ㅓ’ 반모음화가 일어나는구나.
- ⑤ ㉤의 ‘쓰- + -어 → 써[써]’의 경우 ‘피- + -어 → 피[피:]’와 달리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 단모음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흐리- + -어’가 ‘흐리어’가 되는 것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반모음화가 아니라 반모음 ‘j’의 첨가가 일어난 것이므로 15세기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티- + -움’이 ‘툼’이 되는 것은 ‘티’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바 + 이라’가 ‘배라’가 되는 것은 ‘이라’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꾸미- + -어’가 ‘꾸며’가 된 것은 ‘미’의 ‘ㅣ’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논호- + -아’가 ‘논화’가 된 것은 ‘호’의 ‘ㅜ’가 반모음 ‘w’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저도’가 [저도]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탈락했기 때문이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서로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피- + -어’가 ‘펴[펴:]’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는데 ‘살피- + -어’가 ‘살펴[살펴:]’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보상적 장음화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으로 ‘살피-’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나눠[나눠:]’와 ‘뒤[뒤:]’는 모두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써[써:]’는 ‘쓰- + -어’에서 단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피- + -어 → 펴[펴:]’의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코멘트: 올해 반모음이 심상치 않다. 반모음 잘 공부해두자**

## 32. 인용절의 정확한 파악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위 문장은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X)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에서 인용절은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이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교훈: 라고/고라는 표지만 보고 인용절이다! 이러면 하수임 제발 뭐까지 인용절인지 정확하게!!

33. 결코는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부사임

34. 다쳐가 다쳐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탈락한 것임

35. 덮이다랑 덮다는 다른 단어임

사전에 따로 등재됨 즉 ‘이’라는 접사가 피동사라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낸 것임

36. 특이한 어미 정리

1) 노래도 잘하며 운동도 잘한다에서 ‘-며’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 심었구나!에서 ‘-구나’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3) 도착하셨니?에서 ‘-니’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4)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에서 ‘-지만’은 연결 어미이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지마는’의 준말이다.

### 37. 걱정되다의 품사는 무엇인가?

< 보기 >

‘보배로운’의 ‘-롭-’, ‘복된’의 ‘-되-’, ‘사랑스러운’의 ‘-스럽-’ 등은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주로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특히 ‘-스럽-’은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 ㉠ ‘-롭-’, ‘-되-’ 등과 결합한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스럽-’이 결합한 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을 처리하기가 괴롭고 고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수고롭다’가 존재하는데 ‘수고스럽다’도 쓰이는 것은 ‘-스럽-’의 생산성이 높은 것, 즉 ‘-스럽-’이 많은 수의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걱정되는’은 어근 ‘걱정’에 접미사 ‘-되-’가 결합한 동사 ‘걱정되다’의 활용형으로, 이때 ‘-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ㄹ’, ‘ㄷ’이 존재했다. 먼저 ‘ㄹ’은 이미 15세기 후반에 이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세 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가. 글랄>글알(>글월), 더벅>더워  
나. 득빔\니>득외니(>되니), 치븜니>치우니(>추우니)

‘ㄹ’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1가)와 같이 ‘ㄱ’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w’로 바뀌었고, (1나)와 같이 ‘ㄴ’ ‘ㄹ’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 모음들과 결합하여 ‘ㄴ’나 ‘ㄷ’로 바뀌었다. 이러한 ‘ㄹ’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ㄹ’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덥고, 덥더라, 더벅, 더븜니>덥고, 덥더라, 더워, 더우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덥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ㄹ’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ㄹ’으로 나타났다. ‘덥고, 덥더라’의 ‘ㄹ’은 당시 ‘ㄹ’이 음절 끝에서 ‘ㄹ’으로 소리 난 것을 표기한 것이고, ‘더벅, 더븜니’의 ‘ㄹ’은 ‘ㄹ’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다가 ‘ㄹ’이 소멸하면서 ‘덥다’, ‘춥다(>춸다)’ 등 어간 말에 ‘ㄹ’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2) ㅁ슴>ㅁ음(>마음), 스시>스이(>사이)

(2)와 같은 ‘ㄷ’의 탈락은 16세기 문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ㄷ’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짓고, 짓더라, 지서, 지스니>짓고, 짓더라, 지어, 지으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ㅅ’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ㄷ’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ㄷ’이 소멸하면서 ‘짓다’, ‘닛다(>잇다)’ 등 어간 말에 ‘ㄷ’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ㄹ’과 ‘ㄷ’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군.
- ② 15세기 국어의 ‘글랄’이 ‘글알’로 변화한 것은 ‘ㄹ’이 ‘ㄱ’ 앞에서 ‘ㄴ’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치븜니’는 어간 말음의 ‘ㄹ’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지서’가 ‘지어’로 변화한 것은 ‘ㄷ’의 소멸로 어간 말 ‘ㄷ’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⑤ 현대 국어의 ‘춸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용언이군.

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굽다<sup>1</sup> [굽따] 「동사」 활용 정보: 구워[구워], 구우니[구우니]

【…을】 「1」 불에 익히다.

㉠고구마를 화롯불에 구워 먹었다.

「2」 벽돌, 도자기, 옹기 따위의 흙으로 빚은 것이 굳도록 열을 가하다.

㉡옹기를 굽다.

어원: 굽다(15세기)

㉢붓그며 구벼 겹긔 먹더니(볶으며 구워 마음껏 먹더니)

㉣陶 師는 덜엇 굽는 사르미라(도사는 질그릇 굽는 사람이다)

굽다<sup>2</sup> [굽따] 「동사」 활용 정보: 굽어[구벼], 굽으니[구브니]

한쪽으로 휘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

어원: 굽다(15세기)

㉥屈曲은 구블 시라(굴곡은 굽은 것이라)

㉦無憂樹스 가지 굽거늘 어마님 자부샤(무우수의 가지가 굽거늘 어머니가 잡으시고)

- ① ‘굽다<sup>1</sup>’은 ‘굽다<sup>2</sup>’와 달리 타동사로 쓰인다.
- ② ‘굽다<sup>2</sup>’는 ‘굽다<sup>1</sup>’과 달리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 ③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굽다<sup>1</sup>’의 경우에는 ‘구운’으로, ‘굽다<sup>2</sup>’의 경우에는 ‘굽은’으로 나타날 것이다.
- ④ ‘굽다<sup>1</sup>’과 ‘굽다<sup>2</sup>’는 모두 15세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이 ‘빙’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⑤ ‘굽다<sup>1</sup>’과 ‘굽다<sup>2</sup>’는 모두 15세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이 ‘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5세기 국어의 ‘글밭’은 ‘빙’이 ‘ㅌ’ 앞에서 ‘w’로 바뀌면서 ‘글왈’로 변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빙’은 15세기 후반부터, ‘ㅌ’은 16세기부터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15세기 국어의 ‘칩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찰-’으로 나타났으며, ‘치브니’는 ‘찰-’이 ‘-으니’와 결합하여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 ④ 15세기 국어의 ‘지시’는 ‘ㅌ’이 소멸하면서 ‘지어’로 변하였다.
- ⑤ 현대 국어의 ‘춌다’는 ‘추우니’와 같이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굽다<sup>1</sup>’의 어원 정보 중 ‘구벼’를 통해 ‘굽다<sup>1</su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말이 ‘빙’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굽다<sup>2</sup>’의 어원 정보에서 ‘구블 시라’를 보면 ‘굽다<sup>2</sup>’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이 ‘빙’이 아니라 ‘브’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굽다<sup>1</sup>’은 ‘【…을】’을 통해 ‘굽다<sup>2</sup>’와 달리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굽다<sup>2</sup>’는 ‘굽어, 굽으니, 굽는다, 굽다’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모두 ‘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굽다<sup>1</su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이 ‘구워, 구우니’ 등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굽다<sup>1</sup>’의 활용형 ‘구워, 구우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sup>1</sup>’의 활용형은 ‘구운’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굽다<sup>2</sup>’의 활용형 ‘굽어, 굽으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sup>2</sup>’의 활용형은 ‘굽은’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굽다<sup>1</sup>’의 어원 정보 중 ‘굽논’을 통해 ‘굽다<sup>1</sup>’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논’ 앞에서 어간 말이 ‘브’으로 나타났음을, ‘굽다<sup>2</sup>’의 어원 정보 중 ‘굽거늘’을 통해 ‘굽다<sup>2</sup>’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거늘’ 앞에서 어간 말이 ‘브’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39. ‘겠’의 여러 가지 쓰임

수특 <보기>의 일부분: 미래 시제의 ‘-겠-’ 등이 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겠-’은 화자의 추측 또는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겠-’과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문어체에서는 ‘-(으)리-’가 쓰이기도 한다.

㉠ 아마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내었겠다.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하는군. (o)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겠-’은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으)리-’로 바꿔 쓰이기도 하는군. (x)

<보기>는 ‘-겠-’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때 이와 유사한 의미로 선어말 어미 ‘-(으)리-’가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겠-’과 ‘-(으)리-’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었-’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 부사어로 ‘벌써’가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서 ‘-겠-’과 ‘-(으)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음 수특 99p에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지문형 문법 지문이 있습니다. 개념편에서 해당 개념 다 적어 두어서 굳이 싶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니다. 문제 풀고 싶으시면 찾아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 우러러보다는 우러르- + -어 + 보- + -다 의 구성임  
즉 통사적 합성어임 + 퍼내다도 푸- + -어+ -내 + -다의 구성  
(우 불규칙 활용임)으로 통사적 합성어임

42. 보슬비는 개념편에서도 말했지만 보슬이 자립성이 없는 어  
근이라 비통사적 합성어임

43. 돋워 = 돋 + 우 + 어 라서 접미사 우가 존재함

44.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할 때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동사가 ‘-(느)니다, -느냐, -는, -는구나’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형용사는 ‘-다, -(으)냐, -(으)니, -구나’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보통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으)냐’와 결합함  
따라서 좋다는 형용사에 해당함

## 45. 문제 푸세요

현대 국어에서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현상은 치조음 ‘ㄷ, ㅌ’이 뒤에 오는 고모음 ‘ㅣ’의 조음 위치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구개음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려면 ‘ㅈ, ㅊ, ㅉ’의 조음 위치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 국어의 ‘ㅈ, ㅊ, ㅉ’은 치음(齒音)이었는데,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ㅈ, ㅊ, ㅉ’의 경우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추측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디나다 > 지나다, 티다 > 치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모음 ‘ㅣ’나 반모음 ‘ㅈ’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자음 체계에서 경구개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ㅈ, ㅊ, ㅉ’이 아직 치음이었던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이들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근대 국어시기에 와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로 ‘ㅈ, ㅊ, ㅉ’ 뒤의 반모음 ‘ㅈ’이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모두 탈락한다는 점이다. ‘ㅈ, ㅊ, ㅉ’이 치음이었던 중세 국어 시기에는 그 뒤에 반모음 ‘ㅈ’이 자유롭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쟈랑’과 같은 구조의 고유어도 많았고, ‘창(倉)’과 ‘창(昌)’처럼 반모음 ‘ㅈ’의 유무로 그 음이 구별되는 한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ㅈ, ㅊ, ㅉ’이 경구개음으로 바뀌면 ‘ㅈ’와 조음 위치가 중복되어서 경구개음 뒤에서는 ‘ㅈ’가 모두 탈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안도 방언에서 ‘ㅈ, ㅊ, ㅉ’은 여전히 치조 부근에서 발음된다는 점이다. 평안도 방언에서는 ‘ㅈ, ㅊ, ㅉ’이 예전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구개음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들은 ‘ㅈ, ㅊ, ㅉ’의 조음 위치가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 1.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질문: ‘마디’와 ‘티끌’은 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을까?

근대 국어	현대 국어
ㅁ디, ㅁ티	마디
티글, ㅌ글	티끌

- ① ‘ㅈ, ㅊ’ 뒤에서는 반모음 ‘ㅈ’를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ㅈ, ㅊ’의 조음 위치가 아직 치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 ③ ‘ㄷ, ㅌ’이 ‘ㅣ’와 만나는 환경이 형태소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④ 평안도 방언에서의 ‘ㅈ, ㅊ’은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솔이 걸려 있는 아궁이.
- ㉡ 그만 집에 가조.
- ㉢ 오늘은 밭일을 거들어야 한다.
- ㉣ 끝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 ㉤ 오늘 점심에는 감자를 찌 먹자.

- ① ㉠의 ‘솔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되겠군.
- ② ㉡의 ‘가조’는 ‘ㅈ’ 뒤에서 반모음 ‘ㅈ’가 발음될 수 없으므로 [가조]로 발음되겠군.
- ③ ㉢의 ‘밭일’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④ ㉣의 ‘끝으로’는 ‘ㅌ’ 뒤에 ‘ㅣ’가 아닌 ‘ㅡ’가 놓여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⑤ ㉤의 ‘찌’가 현대 국어에서 [찌]로 발음되는 것은 ‘ㅉ’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겠군.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마디’는 ‘마디, 마딛’, ‘티끌’은 ‘티글, 티긔’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마딛’와 ‘티글, 티긔’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ㅈ, ㅊ’ 뒤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근대 국어 시기에 ‘ㅈ, ㅊ’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근대 국어 시기에 ‘디나다>지나다’에서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사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평안도 방언에서의 ‘ㅈ, ㅊ’이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⑤ ㉠에서 ‘쨌’는 [쨌]로 발음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ㅈ’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솔이’는 ‘솔이 → 소티 → [소치]’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가쨌’의 ‘쨌’에서 ‘ㅈ’ 뒤의 반모음 ‘j’는 탈락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밭일’은 ‘밭일 → 받닐 → [반닐]’로 발음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끝으로[끄트로]’는 ‘ㅌ’ 뒤에 놓이는 모음이 ‘ㅣ’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46. 틈새는 유의어 경쟁을 하던 틈과 새가 합성한 것임

## 47. 지문형 문법인데 내용이 좋아요 암기는 ㄴㄴ

국어 표기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는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음주의란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달리 적는다. 반면 표의주의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한글이 창제된 이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표기법은 주로 표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 이어 적기이다. 또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러 음운 현상들을 표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현대 국어의 경우 일부 음운 현상만 표기에 반영하고 대부분은 잘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 써도(ㅅ- + -어도), 아논(알- + -논), 알코(알- + -고)

(나) 든노라(든- + -노라) ↔ 들논(들- + -논)

(가)는 중세 국어에서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기한 예이다. ‘ㄷ’ 탈락, 유음 탈락,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히 ‘ㄷ’ 탈락이나 유음 탈락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현대 국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나)는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례로, 비음화가 대표적이다.

(다) 빛과(빛 + 과), 높고(높- + -고), 비왈디(비왈- + -디)

(라) 밧즈왓더니(밧- + -즈왓더니), 듯보다(들- + 보다), 밧썩지(밧 + 썩지), 것(겅)

(다)는 중세 국어 종성 표기의 예이다. 『훈민정음』에서 종성 표기에 8개의 자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8가지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이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음운 현상이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면서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 (라)는 ‘받-, 든-’처럼 원래 ‘ㄷ’으로 끝나거나 ‘밧, 겅’처럼 원래 ‘ㅌ’으로 끝나므로 그 발음이 종성에서 ‘ㄷ’으로 표기되던 종성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발음상으로는 ‘ㄷ’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발음상의 7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모가 사용되어 발음과 표기가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의 ‘써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② (가)의 ‘아논’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적용된 유음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③ (가)의 ‘알코’는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④ (나)의 ‘든노라’는 ‘ㄷ’에 적용된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⑤ (다)의 ‘빛과’는 음절 말에서 ‘ㅌ’이 ‘ㅅ’으로 발음되는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然ㄱㅇㄷㄴㅂㅍㅆ 八字可足用也 如빛꽃爲梨花 엿의갓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  
그러나 (종성은) ‘ㄱ, ㅇ, ㄷ, ㄴ, ㅂ, ㅍ, ㅆ, ㄹ’의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은 ‘빛꽃’(梨花\*에 해당), ‘엿의갓’(狐皮\*에 해당)은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씬과 같다.

-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 \*梨花: 배꽃.
- \*狐皮: 여우 가죽.

- ① ‘빛꽃’과 ‘엿의갓’은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하겠군.
- ② ‘ㄱ, ㅇ, ㄷ, ㄴ, ㅂ, ㅍ, ㅆ, ㄹ’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된 자음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종성 표기로 볼 수 있겠군.
- ④ ‘빛꽃’의 종성에 쓰인 ‘ㅅ’과 ‘ㅆ’은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두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군.
-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씬’이라는 것은 종성의 ‘ㅆ’과 ‘ㅅ’이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겠군.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뼈도(ㅍ- + -어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가 아니라, ‘-’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논(알- + -논)’은 ‘알-’에서의 ‘ㄹ’ 탈락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이다.
- ③ ‘알코(알- + -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④ ‘든노라(들- + -노라)’는 비음화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경우이다. 중세 국어에서 비음화는 표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 ⑤ ‘빛과(빛 + 과)’는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ㅅ’이 종성에 놓이면 ‘ㅅ’으로 발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근대 국어 시기에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음에도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종성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으리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빛꽃’과 ‘엿의갓’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종성 표기에는 ‘ㄱ, ㅇ, ㄷ, ㄴ, ㅂ, ㅍ, ㅆ, ㄹ’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ㄱ, ㅇ, ㄷ, ㄴ, ㅂ, ㅍ, ㅆ, ㄹ’의 8가지여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을 표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으로 종성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종성 표기로 볼 수 있다.
-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씬’이라는 것은 빛꽃의 ‘ㅆ’과 ‘엿의갓’의 ‘ㅅ’이 종성에서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8. 문제에 나오는 개념이 너무 좋아요 답지까지 꼭 정독 ㄱ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b>자료</b>	기분이 좋은지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 집을 지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b>의문점</b>	왜 '좋은지'의 '지'는 붙여 쓰고 '지은 지'의 '지'는 띄어 쓸까?	
<b>문제 탐구</b>	'자료'에서의 쓰임을 확인한다.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인다.	'자료'에서의 쓰임을 확인한다.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뒤편의 일을 한다. • 아이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밤새도록 놀았다. ☞ '지'는 형용사 어간 등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으)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5px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㉔</td> </tr> </table>
㉔		
<b>적용</b>	"강아지가 집을 나간□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안에 들어갈 '지'는 앞말과 띄어 쓴다.	

< 보 기 >

- ㄱ. '지'는 어간과 결합하여 용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ㄴ. '지'는 조사가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ㄷ. '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서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ㄴ.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붙은 말이 '가'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조사가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ㄷ.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그를 만난', '한국을 떠난' 따위의 수식을 받지 않으면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서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어미의 문법적 특성에 해당하므로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9(매체). 여기서부터 매체인데 매체를 수록하면 이게 분량이 너무 커져서 일단 제가 풀면서 어려웠던 세트 + 개념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게 등장하는 세트의 페이지를 적어두는 것으로 대체 할테니 제발 풀어주세요

- 1) 언매에서도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물어봄(121p)
- 2) 136p부터 시작되는 05매체 1~3 세트 풀기
- 3) 143p부터 시작되는 06매체 1~3 세트 풀기
- 4) 161p부터 시작되는 4~5 세트 풀기
- 5) 173p 3번 문항 보면 뭘 화작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풀어보세요
- 6) 184p 5번 문항이 상당히 좋아요 수학 기호랑 용어의 구분을 요구

50(매체 속에 수록된 언어 문항). 이거는 매체 세트에 수록된 언어 문항 정리이니 무조건 푸셔야합니다.

- 1) 195p 4번 문항
- 2) 199p 4번 문항
- 3) 203p 4번 문항
- 4) 207p 4번 문항
- 5) 208p부터 시작되는 05 통합 세트 1~4 풀기
- 6) 215p 4번 문항

## 실전 학습 정리

### 1.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 모두 변하는 현상임

### 2.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접칼’ (접- + 칼), ‘뉘밥’ (뉘- + 밥), ‘꺾쇠’ (꺾- + 쇠)

- ①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②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③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④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⑤ 비자립적 어근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접칼’(접- + 칼), ‘뉘밥’(뉘- + 밥), ‘꺾쇠’(꺾- + 쇠)는 모두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접미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 ② 접두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 ④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닌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⑤ ‘접-’, ‘뉘-’, ‘꺾-’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인 비자립적 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뭘말이냐 싶을텐데 앞에 보슬비에서 보슬만 비자립적 어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특이 그렇다니 그런거예요

### 3. 문제 푸세요(쉬운데 이 지문형 문법 안에 개념이 너무 좋아요 요 애간하면 외우는 게 좋을듯요)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가령 비가 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요구하는 '밤에 비가 오니?'는 판정 의문문이다.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대개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 대명사가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요구하는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는 설명 의문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는 의도로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A]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의문문은 존재하였는데, 판정 의문문은 '-녀', '-려'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되었다. 예를 들어 '저으며 늘구미 잇느녀(젊으며 늙음이 있느냐?)'는 의문형 종결 어미 '-녀'가 결합된 판정 의문문이고, '이 엇던 사름고(이 어떤 사람인가?)'는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된 설명 의문문이다.

1. 윗글을 통해 <보기>의 ㉠~㉥을 분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의사: (아랫배가 아픈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가 아파요?  
환자: 예, 맞아요. (아랫배가 아픈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건가요?  
의사: 글썽요.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아랫배가 언제부터 아팠지요?  
환자: (불안한 표정으로) 오늘 아침부터요.  
의사: (어제저녁에 식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저녁에 식사했어요?  
환자: 예, 식사를 하긴 했지만, (어제저녁에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뭐 특별한 걸 먹었겠습니까?  
의사: 흠. 정밀 검사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 [A]를 근거로 할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을 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 보 기 >	
㉠ 이 썩리 너희 종가(이 딸이 너희의 종인가?)	
㉡ 므슴 마를 니르느뇨(무슨 말을 이르는가?)	

자료	의문문의 종류	의문문의 실현 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	.....①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	.....②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	.....③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	.....④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	.....⑤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아랫배가 아픈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가 아파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예, 맞아요.’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식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저녁에 식사했어 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 보아 ㉠, ㉢은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 ㉤: 아랫배가 아픈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건가요?’라고 환자가 말한 것에 의사는 ‘글쎄요.’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아랫배가 언제부터 아팠지요?’라고 의사가 말한 것에 환자는 ‘오늘 아침부터요.’라고 답하였다. 이로 보아 ㉣, ㉤은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 어제저녁에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뭐 특별한 걸 먹었겠습니까?’라고 환자가 말하였다. 이는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 수사의 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이 썩리 너희 종가’에서 ‘가’는 체언 뒤에 바로 붙은 의문 보조사이다. 이로 보아 ㉠은 판정 의문문이다. 그리고 ‘므슴 마를 니르느뇨’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뇨’가 실현되어 있다. 이로 보아 ㉡는 설명 의문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의문 보조사가 실현되어 있다.

② ㉡는 판정 의문문이다.

③ ㉣는 설명 의문문이다. 그리고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다.

⑤ ㉣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다.

#### 4. 223p의 7~9 매체세트 어려워니 푸세요

5. 밑줄 친 말이 <보기>의 ㉠, ㉡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접미사의 문법적 특징]**

- 용언과 결합하여 새로운 용언의 어간을 만든다.  
예) '깨-' + '-우-' → '깨우-'
- 용언과 결합하여 품사를 바꾼다. .... ㉠  
예) '웃-' + '-음' → '웃음'
- 용언과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 ㉡  
예) '익-' + '-히-' → '익히다'
- 용언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더한다.  
예) '쫓-' + '-기-' → '쫓기다'

- ①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다.
- ② 나는 열걸에 떠밀려 밖으로 나갔다.
- ③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 ④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다시 돋우었다.
- ⑤ 우리는 학급 대항 달리기 시합에 출전하였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붉히다'는 형용사 어간 '붉-'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므로 ㉠과 ㉡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섞이다'는 '섞-'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 ② '떠밀리다'는 '떠밀-'에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 ④ '돋우다'는 '돋-'에 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로, 품사에는 변화가 없다.
- ⑤ '달리기'는 용언의 어간 '달리-'에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 6.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그냥 외우세요!!!!

< 보 기 >

**[학습 활동]**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런데 서술어 중에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아래 자료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것만을 찾아서 묶어 보자.

**[자료]**

- ㉠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 ㉡ 나는 친구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 ㉢ 형은 커서 의사가 되었다.
- ㉣ 그 고장은 뼈어난 경치로 유명했다.
- ㉤ 그는 정직을 신조로 삼았다.
- ㉥ 둥근 보름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① a, b, e

② b, d, f

③ b, e

④ c, d

⑤ c, f

④ c에서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외에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으)로'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에서 서술어 '부탁했다'는 주어 외에도 '...에/에게'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요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④에서 서술어 '빛났다'는 주어만을 요구한다.

④에서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 외에도 '...이/가'에 해당하는 보어를 요구한다.

④에서 서술어 '유명했다'는 주어 외에도 '...(으)로'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에서 서술어 '사라졌다'는 주어 외에도 '...(으)로'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